

사회

# 악천후가 맞아간 '공군 참모총장 꿈'

## 해남출신 오충현 중령, F-5 비행 훈련 중 안타까운 순직

### 공사 수석 졸업...3만시간 무사고 기록도

넓은 전투기와 악천후가 공군 참모총장의 꿈을 맞아갔다.

지난 2일 'F-5 전투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해남 출신 오충현(43·공사 38기) 중령은 훈련 중 순직한 첫 비행대장으로 남게됐다.

3일 공군 제18비행단에 따르면 오 중령은 전날 낮 12시20분께 F-5F 전투기 후방석에 앉아 강릉기지를 이륙했다. 전방석에 앉은 후배 최보람(27) 중위의 비행훈련을 돕기 위해 후배 조종사의 뒤쪽에 자리를 잡은 것이다.

오 중령은 105비행대대를 책임지는 대대장이자 비행시간 2천792시간을 보유한 베테랑 조종사로, 비행시간 301시간을 막 돌파한 후배 조종사의 '비행 도우미'를 자청했다.

이날 훈련은 평창군 대관령 선자령(해발 1천157m)의 300~2천m 상공에 드리온 구름층을 오느라리며 기동 및 가상 요격을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날 훈련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한 채 훈련 중 순직한 첫 비행대대장이 됐다.

해남군 계곡면 월신리에서 태어나 광주 인성고를 거쳐 공사 38기를 수석 졸업한 오충현은 미래 참모총장의 꿈을 키워왔다.

오 중령은 지난해 12월 105비행대대장에 취임한 후 남다른 군인 정신으로 후배들의 신망을 한몸에 받아왔다. 그는 항상 후배들을 향해 "빨간 마후라의 고향을 이어갈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 숭고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독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 중령은 공사 생도시절 유도 사범이 "유도선수를 해도 될 정도"라고 극찬할 정도로 뛰어난 운동신경을 갖췄으며 매사에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

또 105대대장 취임 후에는 "안전은 하던 것을 답습하는 사람을 제물로 삼는다"며 안전의식을 강조해 105대



순직 조종사 3명에 대해 한 계급씩 추서해 주도록 국방부에 요청하는 한편, 유족과 협의를 거쳐 영결식을 치를 계획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공군 F-5 비행 전면 중단

공군은 3일 전날 F-5 전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같은 기종 전투기에 대한 비행을 중단한 데 이어 대북태세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초계비행을 제외한 모든 전투기의 비행을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했다.

공군은 추락한 F-5 조종사들이 비행착각(vertigo)으로 구름 속에서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 황병산에 충돌했거나 전투기 간 충돌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사고원인 분석에 착수했다. /연협뉴스



3일 해남군 계곡면 월신리 고(故) 오충현 중령의 고향집을 찾은 친척과 마을 주민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오 중령의 생도 시절과 전투기 조종 사진 등이 담긴 액자를 어루만지고 있다. /해남=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틈틈이 일손 도와 효성 지극했는데..."

### ■ 침통한 해남 고향마을·모교 광주 인성고

F-5 추락사고로 순직한 오충현 중령은 평소 효성이 지극하고 리더십이 강한 모범 군인이었다.

해남에서 2남4녀 중 빈농(貧農)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오 중령의 가족은 부인(43)과 아들(18)·딸(14)이 있다. 해남에 거주 중이던 오 중령의 아버지 오중은(74)씨는 갑작스런 아들

의 변고에 급거 강원도 강릉으로 향했으며 큰 충격 때문에 식음을 전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중령의 친척인 오상만(60·해남군 계곡면)씨는 "고향에 한번 씩 내려오면 병약한 부모의 일손을 도와 밤중까지 일할 정도로 효성이 지극했다"며 "지난해 8월에는 오 중령이 마

를 주민들과 칠순 잔치를 하라고 어머니에게 돈을 부쳐줘 큰 잔치를 벌였는데..."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오 중령의 모교인 광주 인성고에서는 3일 '슬픈 입학식이 열렸다. 입학식장을 찾은 동문과 교사들은 오 중령의 사고 소식을 듣고 눈시울을 붉혔다.

동문들은 오 중령의 학창시절을 떠올리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동

문들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면서도 친구들을 챙겨줄 만큼 따뜻한 친구였다"고 입을 모았다.

오 중령의 고교 2학년 담임 교사였던 김덕만(60) 인성고 교장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이었다. 장래희망이 '파일럿'이라고 말할 정도로 일찌감치 조종사의 꿈을 품은 수재였다"며 "공사 수석 졸업 후에도 학교를 찾아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는데, 믿을 수가 없다"고 침통해 했다.

/이중행기자 galee@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 "화장실 인심 야박하네"

### 풍암동 신암마을 노인들 경로당 출입 막아 인근 시설 이용자 "300m 돌아가란 말이나"

광주의 한 마을 경로당 화장실 사용을 놓고 토박이 노인들과 인근 케이트볼장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수년간 갈등을 빚고 있다.

3일 광주시 서구 등에 따르면 풍암동 신암마을 노인인근 아파트 입주 노인 간 감정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94년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어준 82.6㎡ 규모의 신암마을 경로당 때문이다.

양측의 불화는 토박이 노인들이 경로당 소유권을 주장하며 원주민이 아닌 아파트 노인 등의 출입을 막은 데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경로당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토박이 이외의 노인들이 "경로당을 절반으로 나눠달라"는 민원까지 제기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토박이 노인들은 3년 전부터 경로당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 자신들만 출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주민 이외 노인들의 회원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토박이 노인들은 경로당 회원 수가 20명 이하로 줄어 구청으로부터 운영비(1

개월 22만원)를 지원받지 못하자 회비를 거둬 운영하며 인근 아파트 노인들의 입회를 막고 있다. 토박이 노인들은 당시 토공측이 마을회관을 철거하는 대신 경로당을 지어줬고, 운영도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더욱이 회원도 아닌 노인들이 경로당과 화장실을 어지럽히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다는 것.

이 때문에 마을 케이트볼장을 이용하는 아파트와 인근의 노인들은 불과 5m 거리인 경로당 화장실을 앞에 두고 주변 상가 화장실이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일(?)을 보고 있다.

보다 못한 서구청이 3년 전 케이트볼장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위해 공공화장실을 설치해줬지만 위치가 300m나 떨어져 있어 민원은 여전히 많다.

서구청은 노인들 사이의 문제인데다 양측간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 /이중행기자 galee@kwangju.co.kr

## 나원침 (8052) 김장동



### 진도 해상서 선장 숨져

지난 2일 오후 3시30분께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 남서쪽 48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진형호(14t급)의 선장 이모(50)씨가 그물을 끌어 올리는 양망기에 몸이 말려 들어가 숨진 것을 선원 김모(61)씨가 발견, 해양경찰에 신고했다. 해경은 이씨가 레버를 잘못 건드려 상반신이 양망기에 말려 들어가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upark@

## '씩씩이 조업' 中 어선 나포

### 목포해경 130t급 2척... 그물코 줄어 불법 어업

목포해양경찰은 3일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그물코를 줄여 불법 어업활동을 벌인 중국어선 2척을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2일 오후 8시께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83km(EEZ내측 29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양구선적 130t급 저인망어선 노수어호 등 2척을 이중자루그물을 사용한 혐의(제한조건위반)로 나포하고, 증거물로 어획물 2상자와 그물을 압수했다.

노수어호는 어구 망크(그물코 크기) 규정상 54mm 이상을 준수해야 하지만 31mm 어구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중그물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경이 중국어선을 검문검색차 접근하자 증거를 없애기 위해 어획물을 고의로 해상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 1cm 실오라기로 뺑소니범 잡았다

고흥경찰은 3일 귀경을 치어 숨지 게 하고 달아난 양모(66)씨에 대해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8시30분께 고흥군 도양읍에서 1t 화물차를 몰고 가다 박모(45)씨를 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씨의 차량 바퀴에서 발견된 1cm의 청색 실오라기와 피해자 박씨 바지의 섬유질이 유사하다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양씨를 추궁, 범행을 자백받았다. /동부취재본부=주경중기자 gjju@

### 출신 차, 주인 가게 앞 주차 '쿨쿨'

○한 달 전 출진 승용차를 몰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20

대 차량털이범이 하필이면 차량 주인

의 가게 인근 도로에 주차한 뒤 잠을 자다 주인에게 발각돼 경찰서행. ○3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박모(21)씨는 지난달 3일 오전 7시께 북구 용봉동 한 포장마차 주차장에서 시동이 켜진 이모(74)씨의 EF 소나타를 훔쳐 타고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8회에 걸쳐 1천400만 원 상당의 차량과 물품을 훔친 혐의.

○박씨는 이날 이씨의 가게에서 300m 떨어진 도로 갖길에 승용차를 주차해놓고 잠을 자다 가게에 출근하던 이씨에게 발견돼 경찰에 붙잡혔는데, "또 차털이를 하려다 피곤해 깜빡 졸았다"고 진술. /이중행기자 galee@

# PEET / MEET / DEET 전문학원

[약학대]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 "MDPass **의학원** 출신이 아니라면 합격은 어렵다" 이 한마디를 위해...

이 한마디를 위해...

**심화과정**  
개강 3월 2일

단일명 기술문제 풀이  
개강 5월 3일

FINAL 다성문제 풀이  
개강 7월 5일

**특설1 기초시작반**

개강: 3월 2일

2011년 8월 시험 대비를 위한 기초 필수과목 이수(이론서 EPR 관제에 부지한) 선이-해설 3권

**특설2 기초영어**

개강: 3월 8일

공정영어 2000, 150000 고득점 취업을 위한 초·중·고 영어 2~4급 기초과정 1~4급-듣기·말하기 중 8시간제 체계적인 강의

검정원 최고와 강사진의 **박철 출강 강의**

**특별초빙**

과목: 일반생물학

(특별 초빙생물학 전공의 박사학위) 이상미 교수님을 특별 초빙합니다